

보도일시	2021. 10. 21.(목) 배포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21. 10. 21.(목)	담당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
담당과장	황성훈(044-202-4640)	담당자	김인 사무관(044-202-4644)

1단, 2단, 위성모사체 분리는 정상 수행되었으나, 3단 엔진 조기 연소 종료로 아쉬움 남아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임혜숙, 이하 과기정통부)는 오늘 오후 5시 발사된 누리호가 전 비행과정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. 다만, 3단 엔진이 조기 연소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고도 700km의 목표에는 도달하였으나 7.5km/s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구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.
- 한국항공우주연구원(원장 이상률, 이하 항우연)의 분석 결과, 누리호는 이륙 후 1단 분리, 페어링 분리, 2단 분리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으나,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다.
- 금일 발사는 아쉬움을 남겼으나, 국내 독자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*하고, 핵심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남겼다.
 - * 1단 엔진 점화→이륙→1단 엔진 연소 및 1단 분리→페어링 분리→2단 엔진 점화 및 연소→2단 분리→3단 엔진 점화 및 연소→위성모사체 분리
 - 누리호 1단부는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되어 300톤급의 추력을 내는 핵심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, 오늘 발사를 통해 1단부 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.
 - 또한, 1단과 2단, 페어링, 2단과 3단의 성공적 분리와 점화를 통해 단분리 기술을 확보한 점도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.

- 이는 국내에 상당 수준의 발사체 기술력이 축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.
- 과기정통부는 항우연 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‘발사조사위원회’를 즉시 구성하여 3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,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.
-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“누리호 발사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.”고 말했다.
- 이와 더불어 “정부는 오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, 더욱 분발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어 내는 날까지 계속 나아가겠다.”고 밝혔다.